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59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09.18~2025.09.24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평가(등급/성과), 생산, 홍보, 대응, 탄소중립(그린수소)
경제·관광	추석, 농가, 품목, 가격, 기반
지역·사회	꽃자왈, 불법, 환자(의료/병원), 추석, 평가

※ 분석 기간 : 25.09.18.~25.09.24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평가(등급/성과)	-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 서귀포 혁신도시 상생지수 최하위 - 제주 재정자립도 전국 하위 수준
	생산	- 미래 감귤산업 2조원 비전 제시 - 제주형 클린하우스 해외 첫 수출 - 갯녹음 대응 해양생태계 복원 착수
	홍보	-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홍보 논란 - 디지털 관광증 '제주 나우다' 도입 - 제주 4·3, 국회에서 특별전 개최
	대응	- 오영훈 지사 '계엄 행적' 고발 공방 - 추석 연휴 민생 안정 종합대책 가동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추진
	탄소중립(그린수소)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가속화 - 제주, 세계기후경제포럼 개최 - 기업 참여형 ESG 도시숲 개장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추석	- 추석 차례상 물가 상승 - 추석 맞이 소비 촉진 행사 - 추석 연휴 민생 안정 대책
	농가	- 레드향 열과 피해 심각 - 귀농 인구의 급격한 감소 - 감귤 농가 대상 약제비 지원
	품목	- 추석 성수품 가격 변동 심화 - 제주 특화 하이볼 '한라탄' 출시 - 레드향, 기후변화 직격탄
	가격	- 추석 차례상 비용 전국 최고 수준 - 제주지역 높은 기름값 유지 - 관광물가 안정화 정책 추진
	기반	- 농협, 경제사업 기반 시설 확충 - 스마트 농산물 유통 기반 구축 - 제주RISE,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꽃자왈	- 제주공항의 높은 지연율 - 저비용항공사(LCC) 좌석 협소 - 제주-양양 노선 운항 재개
	불법	- 꽃자왈 공유화 위한 시민 모금 운동 - 꽃자왈 보전 운동의 성과와 미래
	환자(의료/병원)	- 석재 폐기물 1만 3천 톤 불법 매립 - 무등록 자동차 불법 정비 기승 - 외국인 대상 무면허 치과 시술
	추석	- 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 제주대병원의 상급병원 지정 추진 - 제주한라병원의 스마트 병상 도입
	평가	- 추석 연휴 특별 안전 관리 대책 - 추석 맞이 민생 지원 및 행사 - 추석 연휴 교통사고 위험 증가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9월 18일~9월 24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923건임
 - 정치·행정 분야 379건, 경제·관광 185건, 지역·사회 359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평가(등급/성과), 생산, 홍보, 대응, 탄소중립(그린수소)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평가(등급/성과)	-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 2024년 실적 기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제주신용보증재단, 문화예술재단, 여성가족연구원이 최우수 '가' 등급을 획득함. 반면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권인 '라' 등급에 머물러 기관 운영에 대한 혁신 요구가 제기됨. 기관 성과와 무관하게 기관장만 높은 등급을 받은 사례도 있어 '책임경영 공백'이라는 비판이 나옴 · 이번 평가는 기관과 기관장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었으며, 일부 기관은 기관 평가가 낮음에도 기관장 평가는 높아 책임경영 공백 논란이 발생함. 제주도
-------	-----------	---

정치·행정	평가(등급/성과)	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급 차등 지급 및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며, 올해부터 평가 점수 비공개 방침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 서귀포 혁신도시 상생지수 최하위 · 민간 연구기관인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의 전국 10개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에서 서귀포혁신도시가 유일하게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음. 성장, 활력, 협력 등 3개 지표 전반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관과 지역 간 상생 없이 고립된 섬이라는 혹평을 받음. 이전 기관과 지자체 간의 실질적인 협력 부재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 · 연구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하여 이전 기관장 평가 기준에 지역 상생 발전 계획을 핵심 지표로 포함하고, 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상생 수준 조사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혁신이 시급함을 제언함. 이를 통해 혁신도시가 이름에 걸맞은 지역 성장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제주 재정자립도 전국 하위 수준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33.1%로 전국 평균(48.7%)에 크게 미치지 못함. 재정자립도 역시 64.4%로 전국 평균(69.7%)보다 낮아, 자체적인 자원 확보와 자율적인 예산 집행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이는 도민 숙원 및 현안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함 · 이러한 재정 취약성의 근본 원인으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023년 기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경제 구조가 지목됨.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고 과도한 국고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인 산업구조 개편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
	생산	- 미래 감귤산업 2조원 비전 제시 · 제주도가 2070년까지 감귤 조수입 2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미래 감귤산업 기본구상' 보완안을 마련하고 25일 농가 설명회를 개최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배면적 유지(2만ha), 평균 당도 12브릭스 달성 등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함 · 또한 농가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과원 7500ha 조성 및 농작업 대행 도입, 유통 다변화를 위한 산지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AI 기반 광센서 선별체계 100곳 확충 등을 통해 감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 제주형 클린하우스 해외 첫 수출 · 제주도의 선진적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스템인 '클린하우스' 제도가 인도네시아 본탕시에 도입됨. 이는 제주형 환경관리 시스템의 첫 해외 진출 사례로, 5년간 128억 원 규모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되는 성과임 ·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가 협력하여 폐기물 관리 행정 경험과 학술적 전문성을 제공하며, 클린하우스 시스템 도입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구축 등 종합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현지에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모델을 전수할 예정임

정치·행정	생산	- 갯녹음 대응 해양생태계 복원 착수 · 제주도가 '바다 사막화'로 불리는 갯녹음 현상으로 황폐해진 연안 바다숲을 되살리기 위해 '마을어장 해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을 본격 추진함. 갯녹음은 제주 연안 전체 암반의 약 40%에서 발생하며 해조류 감소와 어촌 경제 타격의 주된 원인이 됨 · 사업의 핵심은 철, 질소, 인 등 해조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담은 특수 비료(시비재)를 바다에 투입하는 것임. 18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시비재 살포와 해조 생육 블록 설치를 통해 해조류의 성장을 촉진하고 해녀 어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여 바다 생태계를 회복시킬 계획임
	홍보	-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홍보 논란 · 제주도로부터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을 위탁받은 한 민간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과정에서 사은품(양말)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됨. 시민사회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를 선심성 물품 살포이자 여론 조작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함 · 제주도는 관리·감독 미흡을 인정하며 해당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강화를 약속했으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해당 단체가 도 소유 시설에 입주해 있는 등 행정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태가 확산되는 양상임. 제도는 홍보물 내용의 부적절성도 일부 인정함 - 디지털 관광증 '제주 나우다' 도입 · 제주도가 NFT 기반의 디지털 관광증 '제주 나우다'를 도입하여 지난 8월 11일 가입 시작 후 한 달여 만에 가입자 2만 명을 돌파함. 가입자는 160여 개 사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석 연휴를 맞아 제주공항에서 발급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함 · 당초 핵심 기능으로 주목받았던 '나우다 패스'(자유이용권)는 관광업계의 이중 덤핑 우려 등 반발로 운영이 보류된 상태임. 향후 쓰담달리기(플로깅), 고향 사랑기부 등과 연계한 '제주 사랑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단순 할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임 - 제주 4·3, 국회에서 특별전 개최 ·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여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특별전이 오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임. 4·3의 발단부터 진상규명, 제도화 과정까지의 기록과 예술작품을 함께 선보여 4·3의 전국화를 도모함 · 이번 전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주요 기록물 복제본과 함께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 강요배 화백의 '동백꽃집다' 등 문학·미술 작품을 통해 4·3의 진실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임.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참여자 작품도 전시됨
	대응	- 오염훈 지사 '계엄 행적' 고발 공방 · 오염훈 제주도지사가 '12·3 불법 계엄 사태' 당시 대응을 비판한 고부건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됨.

정치·행정	대응	시민사회단체와 한창민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입틀막 (입을 틀어 막는 행위)'이라 규정하며 고발 즉각 철회를 촉구함 · 제주도는 고 변호사가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 변호사 측은 도민 안전과 관련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맞서고 있음.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타당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며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임 - 추석 연휴 민생 안정 종합대책 가동 · 제주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재난안전, 의료, 교통, 물가 등 분야별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함.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사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 물가 안정을 위해 장바구니 물가 조사를 주 2회로 확대하고,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함. 탐나는전 적립률 상향,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등 소비 촉진 및 도민 편의 증진 시책도 함께 추진되어 명절 민생 안정에 집중함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재추진 · 오영훈 지사가 임기 내 3개 기초시 설치가 무산됐음을 공식화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주민투표를 통한 설치 지원 등 핵심 현안을 건의함. 행정구역 단일안 미비로 추진 동력을 잃었으나, 2027년 또는 2028년 선거에 맞춰 재추진할 의사를 밝히며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함 · 기존 '3개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안을 기반으로 한 홍보가 계속되어 도민 혼란이 가중됨. 한편, 제주도의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시 광역의원 축소(45→23~30명) 및 3개 기초의회(총 40명) 신설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며 개편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탄소중립(그린수소)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가속화 · 제주도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목표로 생산·충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냄. 국내 최대 규모인 10.9MW급 생산시설 실증사업을 본격화하고, 기존 행원 3.3MW 시설은 출하설비 증설을 통해 2030년까지 생산량을 10배 확대할 계획을 세움. 이는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전략임 · 충전 인프라도 확대되어 함덕에 이어 도두에 이동형 충전소가 시운전을 시작했으며, 2026년 서귀포에도 3호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임. 이를 기반으로 2026년부터 도내 최초로 수소승용차 민간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여 수소경제 생태계를 전방위적으로 확장할 방침임 - 제주, 세계기후경제포럼 개최 · 제주에서 '2025 세계기후경제포럼(WCEF 2025)'이 열려 '2035 탄소중립' 비전과 기후경제 전략을 국내외에 공유함. 포럼에서는 정부 목표보다 15년 앞선 제주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목표와 RE100 농축산물 생산 등 제주형 혁신 사례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어 국제적 관심을 모음 · 특히 포럼 특별세션을 통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VCM) 도입 로드맵이 처음으로 공개됨. 2026년까지 관련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7년

경제·관광	추석	급등하여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함. 반면 사과, 무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하락하며 품목 간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남 - 추석 맞이 소비 촉진 행사 · 제주시 누웨마루거리 상점가에서 '9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대규모 방문 이벤트를 개최함. 구매 금액에 따라 경품 롤렛 참여 및 고가 경품 추첨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예술가 공연을 마련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 도내 전통시장 5곳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함.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객 증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유도 - 추석 연휴 민생 안정 대책 · 제주특별자치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역화폐 '탐나는전' 적립률을 기존 10%에서 13%로 상향 조정함.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및 일부 도로 주정차 허용 등 도민 편의 증진책 병행 · 한국은행 제주본부,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신권 교환을 실시함. 원활한 교환을 위해 1인당 권종별 한도를 설정했으며, 해당 기간 손상 화폐 교환 업무는 일시 중단됨
	농가	- 레드향 열과 피해 심각 · 여름철 고온과 폭염으로 인해 레드향 열과 피해가 급증, 일부 농가는 피해율이 70%에 달함. 해당 피해는 '생리장해'로 분류되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을 받지 못해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피해가 반복되자 일부 농가들은 레드향 재배를 포기하고 천혜향, 한라봉 등 다른 품종으로 전환 중임. 이는 4~5년 뒤 다른 만감류의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급 관리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부상함 - 귀농 인구의 급격한 감소 · 지난해 제주지역 귀농 가구는 전년 대비 40.7% 급감하여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함. 수도권 등 타시도에서의 이주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짐 · 전체 귀농 인구는 줄었으나, 농업을 본업으로 삼는 '전업 귀농'의 비중은 68.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이는 제주의 귀농이 단순 체험이 아닌 생계형 정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감귤 농가 대상 약제비 지원 · 잦은 비와 고온 현상으로 감귤 열과 및 일소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제주감귤연합회와 농협 제주본부가 방제비 지원에 나섬. 감귤의무자조금을 활용해 피해 예방 약제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 손실 최소화 도모 · 지원 대상은 감귤의무자조금을 1만 원 이상 납부한 9125농가이며, 총 4억 3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됨. 이는 전년 대비 지원 농가 수와 지원액이 각각 14.9%, 20.6% 증가한 규모로, 지원 강화 의지를 보임
	품목	- 추석 성수품 가격 변동 심화 · 추석 차례상 주요 품목의 가격이 급등락하며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킴. 특히 대파(66.7%), 대추(40.8%), 돼지고기(26.7%) 등이 폭염과 질병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줄어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함

경제·관광	품목	· 반면, 사과(-16.7%), 무(-40.0%), 국산 옥돔(-6.3%) 등 일부 품목은 공급량 안정으로 가격이 하락함. 이처럼 품목별로 가격 등락이 엇갈리면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계획이 더욱 중요해짐 - 제주 특화 하이볼 '한라탄' 출시 · 프리미엄 탄산수 브랜드 '탄산오름'과 소주 브랜드 '한라산'이 협업하여 제주 하이볼 '한라탄'을 공동 개발함. 화산암반수와 용암해수 등 제주의 독창적인 지리적 자산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 간의 협업 사례로 주목 · '2025 제주식품대전'에서 첫선을 보인 한라탄은 '제주다우면서 기억에 남는 명칭'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 향후 정식 메뉴 출시 가능성을 열어 지역 식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방향 제시 - 레드향, 기후변화 직격탄 · 제주의 주요 만감류 품목인 레드향이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인한 열과(과실 터짐) 피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음.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는 열과율이 최대 74.7%에 달하며 상품 가치를 잃는 등 농가 피해가 막심함 · 열과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생리장해'로 분류되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일회성 재난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
	가격	- 추석 차례상 비용 전국 최고 수준 · 올해 제주지역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32만 1400원으로, 전국 평균(28만 4010원)보다 약 13.2% 높게 나타남. 전국에서 유일하게 30만원을 넘기며 가장 비싼 지역으로 조사됨 · 전년 대비 2.3% 상승한 금액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채소류 등 핵심 품목의 가격 인상이 전체 비용 상승을 견인함. 고물가 상황 속에서 명절을 맞는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제주지역 높은 기름값 유지 · 전국 주유소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하락했으나, 제주지역은 하락 폭이 미미하여 소비자 체감 효과가 거의 없음. 9월 셋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713.39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준 기록 · 제주의 휘발유 가격은 13주 연속 17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리터당 1700원이 넘는 지역은 서울과 제주뿐임. 높은 물류비가 제주지역 고유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관광물가 안정화 정책 추진 ·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을 목표로 외식물가 가격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됨.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갈치요리 음식점을 대상으로 1인 메뉴 판매를 유도하고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신뢰도 제고 · 사업 참여 업체에는 외부 메뉴판 제작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 향후 갈치 외 다른 품목으로도 가격 개선 사업을 확대해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을 지속할 계획임
	기반	- 농협, 경제사업 기반 시설 확충 · 제주위미농협, 919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하나로마트 및 통

경제·관광	기반	합경제사업장을 신축하고 준공식을 개최함. 농수축산물 유통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 · 신축 건물에는 하나로마트, 농자재백화점, 금융점포 외에도 농기계수리센터와 회의실, 옥상정원 등 편의 공간을 갖춘. 이를 통해 조합원의 편의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이끄는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 - 스마트 농산물 유통 기반 구축 · 제주시, 169억 원을 투입해 AI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4개소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임. AI, 로봇, 비파괴 광센서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유통 구조의 디지털 혁신 주도 · 스마트 APC는 생산부터 상품화, 판매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가능하게 함. 이를 통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핵심 유통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제주RISE, 글로벌 인재 양성 기반 · 제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이 출범 첫해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함. 국내외 60여 개 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국제적 교육 허브로의 도약 준비 · 도내 3개 대학을 중심으로 융합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하여 제주 전략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대학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제주형 혁신 교육 생태계 조성에 집중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꽃자왈**, **불법**, **환자(의료/병원)**, **추석**, **평가**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꽃자왈	- 꽃자왈 공유화 위한 시민 모금 운동 ·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 주최, '같이' 캠페인 10~11월 집중 전개. 사유지 꽃자왈 50만 평 공유화를 목표로 하는 비전의 일환으로, 꽃자왈 보전의 필요성 및 공익적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꽃자왈 보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 · 시민단체 '꽃자왈사람들' 역시 '꽃자왈국민신탁운동'의 일환으로 세 번째 사유지 매입을 위한 모금 캠페인 진행. 목표액 3000만 원을 초과한 3400만 원 모금에 성공하며 꽃자왈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함. 매월 1만 원씩 후원하는 '1만원의 기쁨'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독려 - 꽃자왈 보전 운동의 성과와 미래 ·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은 현재까지 33만 평, 134억 원 규모의 꽃자왈을 공유화하는 성과 달성. 2030년까지 사유지 50만 평 공유화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며 지속적인 운동 전개를 예고함. 후원자에게는 '꽃자왈 동반자' 위촉 및 명예의 전당 등재 등 혜택 제공 · 꽃자왈사람들은 시민 모금액으로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화순꽃자왈 인근 사유지 9000㎡를 매입할 계획. 생태환경이 우수하면서도 보전 등급이 낮아 개발 위험이 높은 사유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매입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 시민 참여를 통한 보전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함
	불법	- 석재 폐기물 1만 3천 톤 불법 매립 · 석재제품 제조업체 대표, 3년간 제주시 한경면 농지 5필지에 폐기물 1만 3천 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기소.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25톤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의 폐석재 및 폐수 찌꺼기를 매립한 것으로 드러남. 제주시 한경면 5필지 토지 4959㎡에 약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파묻음 · 검찰, 불법 매립 및 토석 불법 채취·판매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8억 원을 특정하고 추징 보전 조치. 범행에 가담한 공장장, 알선업자, 토지 소유주, 운반기사 등 공범 4명도 불구속 기소.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됨 - 무등록 자동차 불법 정비 기승 · 과수원 내 컨테이너, 냉동창고 인근 등 은밀한 장소에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 적발. 정상적인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공정 경쟁 저해 및 환경오염 유발 ·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에만 작업, CCTV 경보 시스템 설치 등 치밀한 수법 동원. 유해물질 방지시설 없이 페인트, 시너 등을 공기 중으로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 자치경찰단은 수사를 확대할 방침

지역·사회	불법	- 외국인 대상 무면허 치과 시술 · 중국인 여성 2명, 의료 면허 없이 불법체류 중국인 및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검거. 중국 SNS '위챗'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후, 1인당 약 160만 원을 받고 라미네이트 등 시술 ·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 범행 현장에서 이동형 치과 기계 및 치아성형틀 등 400여 점 압수. 불법 시술을 받던 불법체류자 3명도 현장에서 검거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
	환자(의료/병원)	- AI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 제주대병원 중심, AI 기반 중증응급 심혈관계질환자 이송체계 구축 사업 본격화.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촬영한 심전도를 AI가 20초 만에 분석하여 중증도를 판단하고,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 마련.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발한 'ECG Buddy' 앱을 활용하며, 제주소방서 11개 구급대가 6개월간의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현장 체류시간 단축 등 효과 확인.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주형 중증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 제주대병원의 상급병원 지정 추진 · 제주대병원,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하반기 7대 중점사업 추진. 정부의 '제주 단일 진료권 분리' 사실상 확정과 국정과제 포함으로 지정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TF)를 가동해 세부사항 준비 중 · 핵심 사업으로 교육진료동 신축, 중앙수술실 개선, 다빈치로봇 추가 확보 등 추진. 하반기 심장내과,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 4명을 신규 영입하는 등 우수 의료진 확보를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 - 제주한라병원의 스마트 병상 도입 · 제주한라병원, 500병상 이상 규모로는 전국 최초로 전 병상에 '스마트 병상' 도입. 환자의 심박수, 혈압, 호흡, 체온 등 주요 활력징후를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하는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10월부터 본격 확대 적용 예정. 환자 안전과 진료 효율성 강화 목적 ·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이 병동 전체 환자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알림으로 신속한 조치 지원. 기존 수기 기록 방식 대비 업무 효율성 증대와 진료 정확성 강화 기대. 환자 중심의 디지털 케어 전환의 신호탄
	추석	- 추석 연휴 특별 안전 관리 대책 · 제주도, 추석 연휴 대비 재난·안전, 의료, 교통, 소방 등 분야별 종합대책 수립. 제주해경과 자치경찰단-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공항·항만, 전통시장 등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 및 특별수송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비상

지역·사회	추석	근무 체제에 돌입. 여객선 수송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 관리를 시행 - 추석 맞이 민생 지원 및 행사 · 도내 전통시장 9곳,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 실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가능해 추석 명절 장보기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 제주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취약 1인 733가구를 대상으로 '행복 밀키트' 제공. 배달원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영양 삼계탕, 곰탕 등 간편 조리 식품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고립감 해소를 지원 - 추석 연휴 교통사고 위험 증가 ·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52건으로 전국에서 8번째로 많은 수준.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40명이 부상을 입음. 가족 단위의 장거리 이동이 집중되면서 사고 1건당 피해 규모가 평소보다 커지는 경향을 보임 · 전국적으로도 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평상시보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고로 인한 평균 사상자 수 및 사망률 또한 평소보다 높게 나타남. 이에 경찰과 지자체의 현장 계도, 임행순찰차의 적극적인 활용 등 각별한 교통안전 대책이 요구됨
	평가	- 제주 제2공항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조작 의혹 · 시민단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축소·조작되었다는 의혹 제기. 2023년 최종 제출된 평가서의 위험도가 2021년 재보완서에 비해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 재점화 · 2023년 평가에서 충돌 조류종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 사례(전체의 89%)를 제외하고, 고위험종 분류 기준을 완화해 평가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지적. 최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의 핵심 사유가 조류충돌 위험이었던 만큼, 제2공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 - 제주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 논란 ·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예술고등학교 신설'이 사실상 무산되었음에도, 도교육청 자체 평가에서 '정상 추진' 및 이행률 90%로 분류해 실효성 논란 발생. 기존 음악과 및 미술과 운영 학교들의 반대로 신설이 불가능해졌음을 교육감 스스로 인정함 · 교육청은 연구용역 수행, TF 구성 등 계획된 절차를 이행했기에 높은 이행률을 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약의 최종 목표 달성 여부와 무관한 평가는 실적 부풀리기라는 비판. 공약 이행률 수치 포장으로 인한 신뢰성 문제 제기 - 공공기관 및 사업 평가 결과 · 제주대병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의무구매 이행 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를 기록. 2024년 구매비율이 0.02%로 법정 기준(0.8%)에 크게 미달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지역·사회	평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 반면, 제주도의 '에너지지킴이 사업'은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평가에서 전국 1위(대상)를 수상하며 긍정적 평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역시 전국노인자원봉사 대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제주지역 일부 사업들은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대조를 이룸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